

지역 매 아리

부안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안전망 구축 회의 개최

부안군은 최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운영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각종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화해 지자체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경 협의회기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 사업추진실적과 2019년 추진하는 아동·여성보호 주요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세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 한근호 부군수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간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부안군 아동과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서는 파서지 생범회 합동점검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4대폭력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11여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심원면 두어마을 어촌 체험관광 성지로 각광

조용한 어촌마을에 관광과 체험, 숙박을 접목한 복합해양문화 공간이 들어서면서 주목받고 있다.

고창군이 최근 심원면 두어마을에서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복합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기상 고창군수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 고창군의회 이봉희 의원, 최인규 의원, 두어마을 특화어촌위원회 유홍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두어마을 복합센터는 연면적 599㎡, 2층 구조로 1층은 특산물 가공공장과 민박시설(객실 4개)을 갖췄다. 2층은 지역 특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식당과 카페로 구성돼 정어, 바지락, 복분자를 이용한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두어마을은 랍사르습지로 유명한 고창 갯벌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두어마을 복합센터는 랍사르 고창 갯벌센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고창 갯벌식물원, 만돌·하진 갯벌체험장에 연계해 있어 갯벌 체험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될 계획이다.

두어마을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2016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16억5000만원(마을 자부담 포함)으로 추진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빛원전 재가동 연기해야”

고창군, 원자력안전협의회 참석해 한빛원전의 잇따른 구멍발견에 심각한 우려 제기

고창군이 한빛원전의 대형 공극(구멍) 발견 관련, “안전성 확보 때까지 한빛원전 3·4호기의 재가동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에 참석해 대형 공극이 발견된 원전 3, 4호기와 더불어 나머지 원전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안위 조치사항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고창군은 “향후 보수 계획 및 공극조사가 어려운 부위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이 중요하다”며 “공극을 모두 보수하고 공극조사가 불가능한 구조물 부위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계획예방 정비기간을 무기한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서는 최대 157cm 크기의 공극이 발견됐다.

4호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으로 가동을 정지한 상태로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이와관련 고창군은 “한빛원전은 2017년 5월 처음으로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 공극이 발견된 이후 한빛

3, 4호기에서만 지금까지 200개가 넘는 공극이 발견됐다”며 “현재까지 미처 발견되지 않은 공극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공극을 그대로 둔 채 다시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국민 모두가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원안위는 한빛 4호기의 대형 공극(157cm) 관련, 당초 올 연말까지 계획된 구조물 특별점검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모든 원전 유사부위에 대한 전수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재해걱정 없이 농사짓기 좋은 고창 위해”

유기상 고창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해 지역 현안 건의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지난 30일 이계호 농림부 장관을 만나 고창 '강남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과 '대장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변경안 반영'을 건의했다.

고창군은 고창군 아산면과 무장면 일원 지방하천인 주진천과 소하천인 강남천이 합류되는 지점 약 140ha가 집중호우시 하천 외수위 상승

으로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배수로 통수단면 확장공사와 배수방지 배수문 설치, 저지대 농경지 복토 등을 통해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군은 현재 설계중인 강남천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해 배수개선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2020년도 기본조사 대상지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대장지구는 대산면 대장리 일원

의 대산천과 산정천이 합류되는 지역으로 폭이 좁아 집중 호우시 물이 원활히 빠지지 못해 배수펌프장 설치 시 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고창군은 농림부에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되지 않았던 유수지 설치 방안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업은 고창군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자 고창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며 “군민들이 재난재해 걱정 없이 농사짓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새내기 공직자들과 소통 ‘활발’... 업무 논의·애로사항 청취

소통과 공감의 시장 운영을 펼치고 있는 유진섭 시장이 직원들과의 내부소통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조직 내부소통과 공감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시장과 직원과의 열린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26일과 30일 수성동 소재 엔카페에서 8~9급 새내기 공직자 60여 명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진솔한 대화시간을 가졌다.

유 시장은 먼저 직원들에게 시장 철학과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근무환경과 시에 바라는 점 등 다양한 의견과 소감을 들으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시장업무 뿐 아니라 일상과 관련된 이야기, 취미생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직원들과 함께 격의 없이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지난 26일과 30일 수성동 소재 엔카페에서 8~9급 새내기 공직자 60여 명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진솔한 대화시간을 가졌다.

유 시장은 “직원들이 행복해야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시장은 8월 12일과 14일에도 7급 직원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태인면 피향정 연꽃의 연꽃이 절정을 이뤘다.

은은한 연꽃향기에 ‘흠뻑’

정읍시 태인면 호남제일정 ‘피향정’ 연꽃 만발

호남제일정이라 불리는 정읍시 태인면 피향정(보물 제282호) 연꽃의 연꽃이 절정을 이룬다.

7월 초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연꽃은 8월 중순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녹색 잎과 연분홍 꽃봉오리들의 어우러짐이 눈을 즐겁게 하고, 바람 끝에 묻어 코끝을 간질이는 향이 은은하다.

은은한 향과 아름다운 자태로 유명한 피향정 연꽃 개화 소식에 전해지면서 사진작가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연꽃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

름다운 한옥 정자와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피향정 연꽃 자태는 전국 최고다.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속성으로 인해 예로부터 생명의 빛을 상징해왔다.

시 관계자는 “피향정의 아름다운 모습과 분홍빛 연꽃이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진흙 속에서도 은은한 향을 내뿜으며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는 연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농촌 활성화 위한 치유농업 아카데미 운영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치유농업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했다.

아카데미는 지난 5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10회에 걸쳐 농촌체험 농가와 치유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 2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치유농업(Agro-Healing)은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된 영농체험 활동과 산출물을 활용해 인간의 심리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활동이다.

최근 들어 일과 삶에 지친 많은 이들이 농촌을 찾으면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 농촌체험이나 관광과 달리 농업 활동을 통해 건강과 사회적 치유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체험보다 농장주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힐링 트렌드에 맞추어 올해 처음으로 치유농업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치

유농업의 개념부터 국내·외 사례를 공유했다.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론교육을 8회 운영하고 치유농업 현장교육을 2회 운영, 총 10회의 교육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체험 농가에서 설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현장 모니터링해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치유 프로그램 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전북 14개 시·군 체험 농가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한 'Agro jobs'라는 연구회를 조직 운영,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치유농업에 대한 열기와 관심이 높다”며 “농촌체험 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업과 농촌이 건강 사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껏 솔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